

광주시의회,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요구

“진정한 자치분권 위해 개헌부터”

인사권 독립·전문인력 확충 법제화 의정활동 지방의회 자율 추진 요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가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찬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원 20명은 19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기능 중심의 포괄적 이양을 추진할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기타 행정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의 본질인 재원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또,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전략 33개 과제 가운데 지방의회 관련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공개’라는 하위과제에서 다루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적으로 다루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만큼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9월19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광주시의회 입장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하고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과 관련해 조례로 법제화할 것, 의정활동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와 함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을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줄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밖에 광주시의회는 행안부가 내년 1월 입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김 의장은 “행안부가 마련한 광역의원 보좌관제는 의원 3명당 1명의 정책보

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의 광주시의회에 적용하면 모두 7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며 “적어도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보좌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행안부가 정책보좌관제를 법제화하면서 현재 광주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공무원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의회에서 시간제 공무원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15명의 보좌관 가운데 절반 정도가 보좌관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국 광역의회 시도의회협의회를 통해 당장 의원 1인당 1보좌관 도입이 힘들더라도 의원 2명당 1명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평택산단서 환경오염물 배출 19곳 적발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가 대기오염시설이 있는데도 운영을 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공장을 운영한 양심불량 업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포승산단지역과 세교공업지역, 대단위 고덕 택지개발 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부적정하게 오염물질을 처리한 19개 사업장을 적발,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의 지난 8월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4.4µg/m³으로 환경기준인 30µg/m³을 훌쩍 넘었다.

이번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지 7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 알루미나생산업체는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 처분했다.

B스테인리스강관인쇄업체는 저장시



경기도가 평택시의 모 기업에서 대기방지시설 덕트가 훼손된 채로 방치된 모습. /경기도

설의 오염물질을 한 데 모아서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C택지개발 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고 포클레인 등 중장기를 사용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방지시설 미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한 3개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경기지역화폐’市·郡 목소리 모아 성공 꿈꾼다

경기도,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활성화 방안·추진상황 등 공유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시·군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경기도는 19~20일 양일간 양평 블루비스타에서 도 및 시·군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도입·확대를 위한 제2차 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지역화폐’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제도를 보완·발전시키는 목적이다.

도는 지난달 27일 시·군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1차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현재 지역화폐 추진상황을 설명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고 지역화폐 표준조례안과 매뉴얼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제실장 주재 도-시·군 과장급 간담회,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분임별 토의를 통해 ▲시·군별 지역화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지역화폐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희망 사업자들도 참여, 각 회사별 제안 설명을 청취해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총 7개 회사가 참여해 10분간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보안성 확보방안, 소요예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 설명회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자들의 플랫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사업자 선정과는 관련이 없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는 이영주(양평, 경제과학위원회) 경기도의원은 “경기지역화폐의 성공적 정착은 현장 공무원에게 달려있다”며 “가맹점 확대, 사용자 편의 등 지역화폐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메밀꽃 바라보며 휴식을 19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섬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메밀꽃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인사·조직·문화 시정혁신 팔면어

광주광역시 혁신·소통·청렴의민선 7기 시정가치를 반영한 조직·인사·문화 등 시 내부행정 4개 분야 20개 혁신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7월 2일 전 직원 대상 첫 정례대회에서 “공직자들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설 수 있다”면서 인사혁신, 조직혁신, 문화혁신 등 광주시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시정혁신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시 혁신안은 시민편의 증진과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에 대응해 행정변화의 능동적 주체로서 정책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조직, 인사, 문화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 현안조정회의, 혁신아이디어발굴 TF,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사 분야에서는 부서장의 추천, 개인의 희망(사유), 경력(근무부서, 근무성적, 상훈, 평가결과, 교육 등)을 고려하는 일 중심의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광주=봉태영 기자

광주 남구 “내일,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갑니다”

“추석 성수품,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에 가득 담아 오겠습니다.”

광주 남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오는 21일 관내 전통시장에서 ‘2018년 추석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추진한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백운시장에서 구청 공무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장보기에는 구청 모든 실·과·소 직원 및 관내 16개동 주민센터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추석 제수용품 및 생활 필수품을 구입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청 공무원 200여명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자체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5만원씩 모아 총 1,0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구입하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지갑을 쉽게 열지 않아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주



광주 남구 봉선시장

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활력의 바람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